

2019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해설

본 해설은 현직 선생님들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손수 만드신 재창작물입니다.
따라서 본 해설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 1 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1

1	①	2	④	3	②	4	②	5	④
6	②	7	⑤	8	③	9	④	10	②
11	②	12	①	13	④	14	⑤	15	⑤
16	③	17	①	18	②	19	③	20	③
21	②	22	④	23	③	24	⑤	25	③
26	④	27	⑤	28	⑤	29	④	30	①
31	①	32	①	33	③	34	①	35	①
36	⑤	37	②	38	④	39	⑤	40	②
41	④	42	①	43	③	44	③	45	⑤

[1~3] 화법

[지문 분석]

여러분, 지난 체험 학습 때 생태 공원의 교육관에서 함께 시청했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시죠?(질문을 통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함) 저는 그와 관련하여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시각 자료 활용) 이곳은 ○○ 나라의 항구 도시 □□입니다. 과거 이 지역은 수중 생물들이 방파제 역할을 했으나, 항구가 건설되면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어 물이 범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운하인데요, 이 운하가 만들어져 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 오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 왔는데, 최근에 굴 구조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학 시간에 굴이나 홍합이 자연의 방파제가 될 수 있고 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질문을 통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함)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대부분 기억하시는군요. 제가 소개하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굴의 능력을 활용한 것입니다. □□ 도시의 해안가에는 원래 굴이 많이 서식했지만, 항구와 운하를 만들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사라진 굴의 서식지를 복원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프로젝트의 목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굴 서식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굴 서식지가 조성되면 물이 정화되고 암초처럼 크고 단단하게 굳어진 굴 구조체가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 기대 효과) 그런데 굴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운하에도 굴이 있습니다. 운하에서는 ‘떠있는 용승 시스템’을 설치하여 어린 굴을 키웁니다. 이 장치의 부표 아래에는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있으며, 통로 양옆에 굴을 키우는 방이 있습니다. 이곳의 굴들은 성장하면서 운하의 물을 정화합니다.(긍정적 기대 효과) 이 장치에서 어린 굴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해안가 근처의 암초망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작은 굴 구조체 덩어리가 형성되면 대규모 서식지로 옮겨집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화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은 파도에 의한 물의 범람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긍정적 기대 효과) 그리고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에 대규모로 만들어진 굴 서식지에는 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긍정적 기대
--

효과)됩니다. 이와 같이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문 확인]

- 갈래: 발표
- 주제: 굴 구조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소개
- 특징
 - 질문을 통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의 내용과 연결함
 -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1. <답> ①

<정답률> 89%

<정답 풀이>

1문단의 ‘여러분, 지난 체험 학습 때 생태 공원의 교육관에서 함께 시청했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시죠?’와 2문단의 ‘지난 과학 시간에 굴이나 홍합이 자연의 방파제가 될 수 있고 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에서 질문을 통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의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발표문에서 발표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발표문에서 여러 사례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며 발표의 주제를 이끌어 내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발표문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발표문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TIP>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선지에서 파악해야 할 말하기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에서 미리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번 : 질문, 공유 경험
- 2번 : 발표 순서 제시
- 3번 : 사례 비교 결과 제시
- 4번 : 발표 내용 요약
- 5번 : 전문가의 말 인용

2. <답> ④

<정답률> 74%

<정답 풀이>

㉠은 대규모 굴 서식지이므로 3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굴 서식지가 조성되면 물이 정화되고 암초처럼 크고 단단하게 굳어진 굴 구조체가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안을 설명해야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이 운하가 만들어져 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 오염되

는 문제가 생겼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운하(㉠)에서는 ‘떠 있는 용승 시스템’을 설치하여 어린 굴을 키운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대규모 굴 서식지(㉡)가 조성되면 물이 정화되고 암초처럼 크고 단단하게 굳어진 굴 구조체가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파도에 의한 물의 범람(㉢)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TIP>

자료 활용 방안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에 해당하는 지문의 내용을 확인해서 해결하면 된다.

3. <답> ②

<정답률> 89%

<정답 풀이>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의문점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즉, 자신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굴 구조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얼마 전 △△ 나라에서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어 해일이 심해졌다는 기사를 읽었는데(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사례), 맹그로브 숲이 복원될 필요가 있겠어.

③ 운하가 만들어진 후 물이 잘 순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발표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웠어.(부정적 평가)

④ 굴 구조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긍정적 생각) / 도시 가까이 생태계를 복원해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좋았어.(긍정적 생각)

⑤ 굴이 오염된 물을 정화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의문 제기) /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발표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웠어.(의문 제기)

<TIP>

청중의 듣기 활동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당 유형의 경우 지문 내용보다는 제시된 듣기 활동의 세부 내용과 선지를 비교하여 정답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선지의 핵심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번 : 사례

2번 : 실천 방법

3번 : 부정적 평가

4번 : 긍정적 생각

5번 : 의문 제기

[4~7]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가)

학생 1: 지난 회의에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오늘은 기사의 내용 구성(회의 내용)에 대해 논의해 보자.

학생 2: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가 급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본문의 처음 부분에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면 학생들이 기사 내용에 주목할 거야.(학생 2의 의견과 근거)

학생 3: 그러면 학생들이 단순히 급식 메뉴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행사의 취지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어.(학생 3이 생각하는 학생 2 의견의 문제점) 그러므로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행사가 실시된다는 취지부터 언급하는 것이 좋겠어.(학생 3의 의견)

학생 1: 좋아.(긍정적 반응) 그렇게 하면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게 된 취지가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

학생 2: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겠구나.(긍정적 반응) 그럼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취지부터 부각한 후,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

학생 1, 3: 응, 그래.

학생 1: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도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학생 1의 의견)

학생 3: 좋아.(긍정적 반응) 그런데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학생 2: 그 내용도 필요한데 너무 길게 쓰면 기사가 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유의할 점) 이 점을 고려하여 쓰면 좋겠어. 그리고 급식 메뉴 선정 방법을 그 과정에 따라 서술하자. 그러면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학생 1, 3: 그게 좋겠다.(긍정적 반응)

학생 3: 내가 취재해 보니,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생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

학생 1: 맞아, 전에 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어 알고 있는데, 그 기준들과 학생들의 선호를 모두 고려하여 메뉴를 선정하느라고 매우 힘들었을 거야.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자.

학생 2: 그래, 좋아.(긍정적 반응)

학생 1: 그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할까?

학생 2: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해결을 촉구하면 어떨까?

학생 3: 그런 내용은 기사문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아.(학생 2의 의견의 문제점)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좋겠어.

학생 2: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다. 나도 동의할게.

학생 1: 응, 그래. 그리고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향후 계획도 함께 언급하면 어때?

학생 2, 3: 좋아.

학생 1: 그럼, 이제 기사문을 작성해 보자.

[지문 확인] (가)

- 갈래: 회의
- 주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회의
- 특징
 - 지난 회의 결과를 통해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함
 - 기사문의 내용이 독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기사문의 서술 방식을 제안함
 -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학생의 발화에 공감함

[지문 분석] (나)

【표제】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급식 메뉴
【부제】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이기 위해 실시돼

[전문] 4월 3일(수), 3학년 7반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다.

[본문]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여 환경 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행사 목적) 이번 달부터 1달에 1번씩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한다. 다음 달 급식 메뉴는 3학년 7반 학생들이 선정했다. 메뉴로는 흑미밥, 대패 삼겹살 구이, 상추쌈, 명이 나물, 된장국, 구슬 아이스크림이 선정되었으며, 4월 3일(수) 급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들은 매월 잔반을 가장 적게 배출하는 학급의 학생들이 선정된다.(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들의 선정 방식)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3학년 7반 학생들은 먼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 식단표의 열량 정보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을 구해 급식 메뉴를 결정했다.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메뉴 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면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기대 효과) 이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급식 메뉴가 제공된 후 학생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현재 매월 1회인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므로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학생들의 참여 유도)

[지문 확인] (나)

- 갈래: 기사문
- 주제: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급식 메뉴
- 특징
 - 보도하고자 하는 행사의 취지가 드러나도록 표제나 부제를 작성함
 -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과 관련지어 학생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함
 -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함
 - 급식 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려해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힘

4. <답> ②
<정답률> 85%
<정답 풀이>
학생 2은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난 회의에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는데(지난 회의 결과를 환기), 오늘은 기사의 내용 구성(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 논의해 보자.
③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도(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의문의 형식)
④ 급식 메뉴 선정 방법을 그 과정에 따라 서술하자.(기사문의 서술 방식) 그러면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독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⑤ 맞아, 전에 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어(배경지식) 알고 있는데, 그 기준들과 학생들의 선호를 모두 고려하여 메뉴를 선정하느라고 매우 힘들었을 거야.(공감하는 태도)
<TIP>
말하기 방식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을 읽고 선지를 확인, ㉠을 읽고 선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정답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에서는 2번에서 빠르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5. <답> ④
<정답률> 71%
<정답 풀이>
[A]의 ‘그래, 너희들의 의견대로 하면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겠구나’에서 [B]의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다. 나도 동의할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에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의견을 일부 인정한 것이 아니다.
③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⑤ [A]의 ‘그렇게 하면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게 된 취지가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B]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TIP>
답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제이다. 답화 맥락을 고려하여 [A]를 읽고 해당 선지(1, 2, 4, 5)를 확인하고 정답을 확인할 수 없으면 [B]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6. <답> ②
<정답률> 81%
<정답 풀이>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메뉴 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확인할 수 있지만, 행사의 효과를 부각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표제 ‘우리 직접 선정하는~’에서 부제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이기 위해~’에서 행사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급식 메뉴가 제공된 후 학생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현재 매월 1회인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므로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들은 매월 잔반을 가장 적게 배출하는 학급의 학생들이 선정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음 달 급식 메뉴는 3학년 7반 학생들이 선정했다. 메뉴로는 흑미밥, 대패 삼겹살 구이, 상추쌈, 명이 나물, 된장국, 구슬 아이스크림이 선정되었으며, 4월 3일(수) 급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글쓰기 전략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당 유형의 경우 제시된 작문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지문을 읽는 것이 좋다.

7. <답> ⑤

<정답률> 71%

<정답 풀이>

학생 1의 발화를 바탕으로 한 조건 :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

학생 2의 발화를 바탕으로 한 조건 : 급식 메뉴 선정 과정에 참여한 학생의 말을 인용(㉡)

이 과정에 참여한 ○○○은, (㉢)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은 고열량으로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메뉴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했다.(㉣)

<오답 풀이>

①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이유는 확인할 수 없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②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선정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과 학생 선호를 모두 반영한 것이므로 선정 메뉴에 대한 불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와 ㉡ 모두 확인할 수 없음)

③ 이 과정에 참여한 ○○○은, (㉢)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 위주로 급식 메뉴를 선정하다 보니 학교 급식 단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메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④ 이 과정에 참여한 ○○○은, (㉢) 영양사 선생님께서 평소 학생들의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서 메뉴를 선정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며 그 노고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TIP>

고쳐쓰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을 올바르게 고쳐쓰지 못한 것을 확인하는 형태로 출제되는 유형이다. 이 문제의 경우 고쳐 쓴 글을 제시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바뀐 부분을 확인하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8~10] 작문

[지문 분석]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사전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다.(사전 규제 방식의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대부분의 경우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전 규제 방식의 유지에 찬성한다.(글쓴이의 주장)

드론은 고성능 카메라나 통신 장비 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치 정보까지 저장할 수 있다.(인과의 방식으로 드론의 특성을 설명함) 또한 드론에서 수집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전송하는 중에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문제점) 더욱이 드론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제점)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전 규제 방식이 유지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드론은 인명 구조, 시설물 점검 등의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물류 서비스 등의 민간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문제점)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 규제 방법을 도입하면 드론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게 만들어, 사생활 침해는 더욱 심해지고 개인 정보의 복제, 유포, 훼손, 가공 등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증가할 것이다.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제약이 적기 때문에 드론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드론 기술과 산업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글쓴이가 생각하는 반대 의견)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산업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의 기본권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예상 반론에 반박)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면 정보의 활용이 용이해져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명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도록 하고 있고, 개인 정보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헌법을 근거로 삼음) 이와 같은 기본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때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문 확인]

- 갈래: 논설문
- 주제: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사전 규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 특징
 -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듦
 -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의 주요 내용을 제시함
 -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용이한 드론의 특성을 언급함
 -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함

8. <답> ③

<정답률> 74%

<정답 풀이>

(다)에서 드론이 어떤 기술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지를 설명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그 한계점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사전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대부분의 경우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드론은 고성능 카메라나 통신 장비 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치 정보까지 저장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사후 규제’ 방법을 도입하면 드론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게 만들어, 사생활 침해는 더욱 심해지고 개인 정보의 복제, 유포, 훼손, 가공 등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증가할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산업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의 기본권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글쓰기 계획 반영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선택지의 핵심 내용을 지문을 읽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의 경우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번 : 사전, 사후 규제 방식의 주요 내용

2번 : 드론의 특성

3번 : 기술적 원리와 한계

4번 :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

5번 : 문제점 제시

9. <답> ④

<정답률> 81%

<정답 풀이>

학생의 초고에서 ㉔의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 중에서 사전 규제 방식을 선택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3문단에서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의 의도적 악용 등의 개인 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초고에는 개인 정보 침해를 예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의 ‘드론은 인명 구조, 시설물 점검 등의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물류 서비스 등의 민간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드론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5문단의 ‘헌법에서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명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도록 하고 있고, 개인 정보를 자

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면 정보의 활용이 용이해져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선택지에서 말한 자료가 지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10. <답> ②

<정답률> 61%

<정답 풀이>

<보기>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같은 처벌을 예로 들어,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A]의 내용은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했을 때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것이므로,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반박하는 글을 쓰다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엄격한 기본권 보호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선지의 내용은 <보기>에서 찾은 근거라고 판단할 수 없다.

③ 개인 정보의 침해 종류에 따라 손해 배상액을 결정하자는 내용은 <보기>와 관련이 없다.

④ 선지의 내용은 <보기>에서 찾은 근거라고 판단할 수 없다.

⑤ 선지의 내용은 <보기>에서 찾은 근거라고 판단할 수 없다.

<TIP>

비판적 관점에서 반박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문제이다. 발문에서 <보기>에서 근거를 찾으라고 했으므로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한 선지를 확인하면 된다.

[11~15] 문법

11~12번 문법 이론 : 음운의 변동 현상

①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가운데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가 위의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된다.

예) 부엌[부억], 한낮[한난], 잎[입], 깎다[깍따], 낮잠[넉잠]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된다.

예) 낮이[나지]

2) 비음화: 끝소리가 파열음인 음절 뒤에 첫소리가 비음인 음절이 연결될 때, 앞 음절의 파열음이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 ‘ㄱ’은 비음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예) 국물[궁물], 낚는다[냥는다], 부엌 문[부영문]

- ‘ㄷ’은 비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예) 단는[단는], 겉모양[건모양]

- ‘ㅂ’은 비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예) 밥물[밤물], 앞니[암니]

3) 유음화: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 음절의 끝소리 ‘ㄹ’ 뒤에 음절의 첫소리 ‘ㄴ’이 올 때 ‘ㄴ’이 [ㄹ]로 발음된다.

예)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훑는[훑는 → 훑른]

- 음절의 끝소리 ‘ㄴ’ 뒤에 음절의 첫소리 ‘ㄹ’이 오면 ‘ㄴ’이 [ㄹ]로 발음된다.

예) 신라[실라], 논리[놀리]

4)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 형태소 끝소리의 ‘ㄷ’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ㅈ]으로 발음된다.

예) 해돋이[해도지], 굳이[구지]

- 형태소 끝소리의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ㅊ]으로 발음된다.

예) 같이[가치], 발이[바치]

5) 된소리되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 ‘ㄱ, ㄷ, ㅂ, ㅅ, ㅈ’은 ‘ㄱ, ㄷ, ㅂ’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입고[입꼬], 묻다[묻따], 국밥[국뽵], 박사[박싸], 값지다[갑쩌다]

- 용언이 활용할 때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어간의 끝소리 ‘ㄴ,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신고[신꼬], 넘다[넘따]

- 두 어절 이상이 연결되는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② 축약

1) 개념: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음운의 축약이라고 한다.

2) 종류

- 자음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자음 축약이라 한다.

예) 좋고 → [조코], 많다 → [만타], 업히다 → [어피다], 젓히다 → [저치다]

- 모음 ‘ㅣ’나 ‘ㅏ/ㅗ’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것도 축약이라 한다. 이때 모음 ‘ㅣ’나 ‘ㅏ/ㅗ’는 반모음으로 바뀐다.

예) 가리- + -어 → 가려, 두- + -었다 → 뒸다

③ 탈락

1) 개념: 두 개의 자음이 이어지거나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탈락되는 현상을 음운의 탈락이라고 한다.

2) 자음 탈락

- 자음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몇몇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된다.

예) 올- + -는 → 우는

- 자음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된다.

예) 좋아[조아], 쌓이다[싸이다]

- 음절의 끝소리에 자음 두 개가 오면 하나는 탈락되고 나머지 하나만 발음이 된다.

예) 닭[닥], 삼[삼], 밭고[밭꼬], 훑다[할따]

3) 모음 탈락

-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ㅗ’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된다.

예) 쓰- + -어라 → 써라

- 모음 ‘ㅏ/ㅗ’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ㅗ’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ㅏ/ㅗ’가 탈락된다.

예) 가- + -아서 → 가서

④ 첨가

1) 개념: 두 형태소가 결합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첨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종류

-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뒤 형태소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예) 밤 + 길 → 밤길[밤깁], 초 + 불 → 촛불[초뽵/촛뽵]

-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ㄴ, ㄹ’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예) 코 + 날 → 콧날[콘날→곤날], 이 + 몸 → 잇몸[인몸→인몸]

-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ㄴ’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예) 맨- + 입 → 맨입[맨닙], 한- + 여름 → 한여름[한녀름]

11. <답> ②

<정답률> 72%

<정답 풀이>

㉠은 자음축약(거센소리 되기)에 해당한다. 농기[노키]도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 되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해당 단어의 표준 발음은 ㉡에 해당한다.(자음 탈락)

③ 해당 단어의 표준 발음은 ㉢에 해당한다.(자음 축약)

④ 해당 단어의 표준 발음은 ㉡에 해당한다.(자음 탈락)

⑤ 해당 단어의 표준 발음은 ㉣에 해당한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TIP>

음운의 변동 현상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의 개념과 ㉠~㉣에서 설명하는 구체적 음운 환경을 선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12. <답> ①

<정답률> 37%

<정답 풀이>

[A]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다면, 체언 ‘하늬’은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언 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연음이 된다. 그러므로 ㉔는 ‘하늬’에 조사 ‘이’가 붙어서 ‘하늘히’로 연음이 된 것이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A]에서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뒤에 오는 ‘ㄱ, ㄷ’과 축약되어 ‘ㅋ, ㅌ’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㉕에서는 ‘하늬’의 말음인 ‘ㅎ’과 뒤에 오는 ‘도’의 ‘ㄷ’이 ‘ㅌ’으로 축약되어 ‘하늘토’가 되었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든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A]에서 어떤 체언이 ‘ㅎ’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하여 쓰였을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아서 ‘ㅎ’을 말음으로 가지지 않은 체언과 구별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하늬’은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하늘’ 역시 ‘ㅎ’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 ③ ‘하늘토’에서 ‘ㅌ’은 ‘하늬’의 말음인 ‘ㅎ’과 뒤에 오는 조사 ‘도’의 ‘ㄷ’이 축약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ㅎ’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또한 ‘하늬’은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 ④ ‘하늬’은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것으로,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 ⑤[A]의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뒤에 오는 ‘ㄱ, ㄷ’과 축약되어 ‘ㅋ, ㅌ’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하늬’에 조사 ‘도, 과’가 결합하면 ‘ㅎ’과 ‘ㄷ, ㄱ’이 축약되어 ‘하늘토, 하늘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TIP>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 체언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발문에서 [A]를 참조하라고 했으므로 이를 유념해 [A]의 내용을 정확히 읽고 이를 <보기>의 ㉔~㉕에 적용해야 한다.

13번 문법 이론 : 형태소와 단어

형태소 : 뜻(의미)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1) 자립성 유무(有無)에 따른 종류

자립 형태소	자립성을 지닌 홀로 설 수 있는 형태소
	(예) 철수, 이야기, 책, 어머니, 저녁
의존 형태소	자립성이 없어, 홀로 서기가 어려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예) 가, 을, 읽-, -었-, -다, 는, 가지-, -고, 들-, -어, 오-, -시-, -었-, -다.

2) 의미의 유무(有無)에 따른 종류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
	(예) 철수, 이야기, 책, 읽-, 어머니, 저녁, 가지-, 들-, 오-
형식 형태소	자립성이 없어, 홀로 서기가 어려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예) 가, 을, -었-, -다, 는, -고, -어, -시-, -었-, -다.

3) 형태소의 종류와 문법 요소

자립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의존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실질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형식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단어

1) 어절과 형태소의 중간 단위
2) 조사는 단어로 잡고 어미는 단어로 잡지 않는다.
3) 파생어, 복합어도 하나의 단어이다
4) 사전에 실리는 기본 단위

13. <답> ④

<정답률>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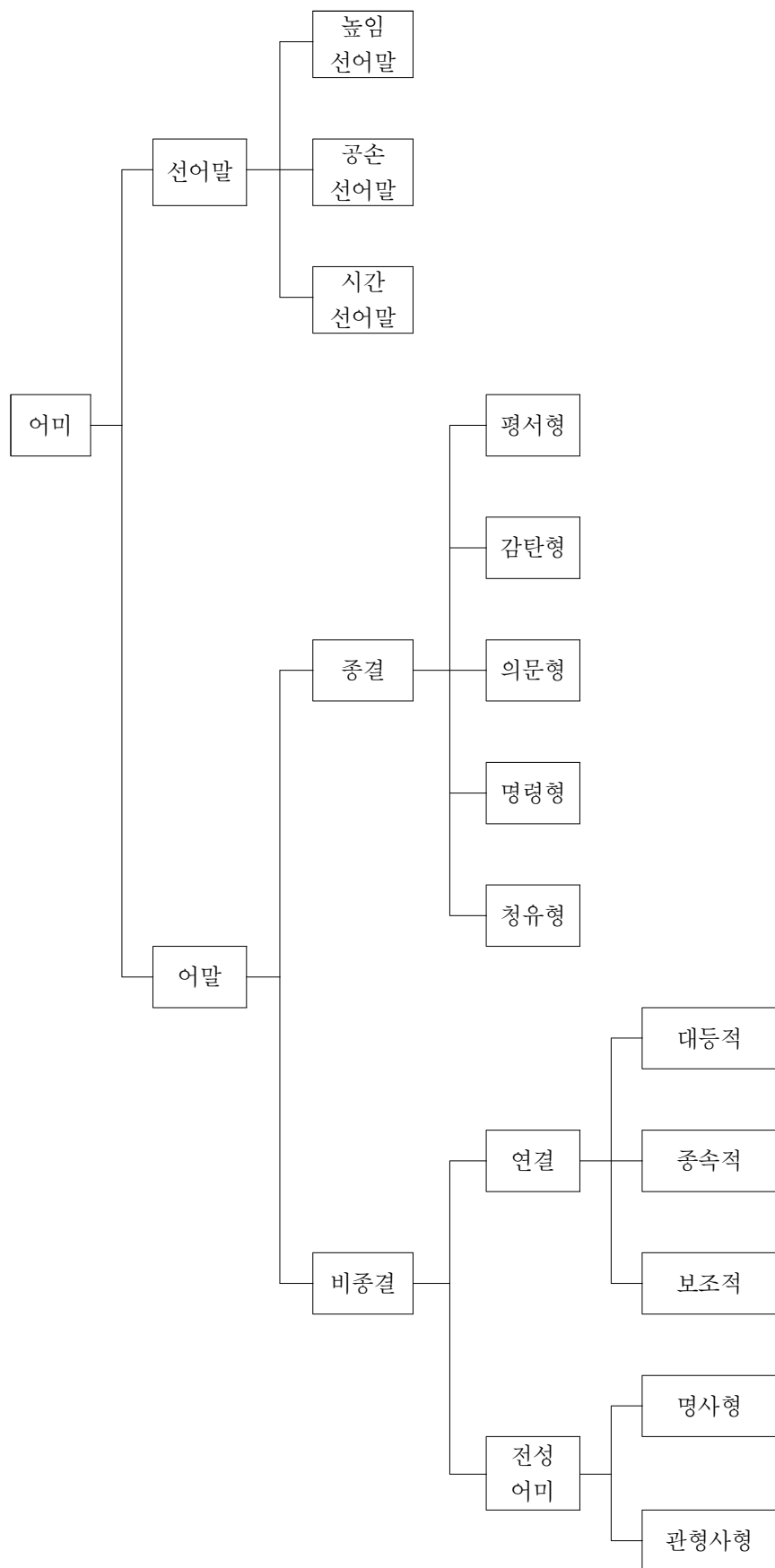
<정답 및 오답 풀이>

- ㉑ :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묻-’),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물-’)
- ㉒ :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어간 끝음절의 모음에 따라 형태가 변화
- ㉓ :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결합하는 앞말의 끝음절에 받침의 유무에 따라 형태가 변화
- 즉, 공통점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㉒, ㉓만 문법적 의미(형식 형태소)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TIP>

단어와 형태소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형태소의 종류를 분석할 수 있다면, 3번 4번 선지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이형태의 개념을 제시된 <보기> 자료에서 확인하면 된다.

14번 문법 이론 : 어미



14. <답> ⑤

<정답률> 53%

<정답 풀이>

‘흰 눈이 내립니다.’에서 ‘흰’의 ‘-ㄴ’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따라서 ‘-ㄴ’ ②의 예문으로 추가해야 하므로 ‘-ㄴ-’이 아닌 ‘-ㄴ’ ②에 0으로 표시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간다’에서 ‘-ㄴ-’은 종결 어미 ‘-다’의 앞에 붙어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짚’의 ‘-ㄴ’과 ‘유명한’의 ‘-ㄴ’은 뒤에 다른 어미가 붙어서 사용될 수 없다.

② ‘간다’는 ‘가신다’로, ‘짚’은 ‘짜신’으로, ‘유명한’은 ‘유명하신’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③ ‘짚’은 ‘옷’을 수식하였고, ‘유명한’은 ‘성악가’를 수식하였기 때문에 관형어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시간 표현에서 ‘간다’, ‘유명한’은 현재 시제이고, ‘짚’은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TIP>

사전을 통한 어미의 쓰임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학습지]의 질문에 제시된 문법 이론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제시된 <보기>의 예문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다.

15번 문법 이론 : 문장의 성분과 구조

문장 성분의 성립

(1) 문장 성분의 정의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들. 즉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2) 문장의 기본 골격

기본 골격	서술어의 형태	문장의 종류	예
무엇이 어찌한다	동사	동사문	철수가 공부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형용사	형용사문	영희가 예쁘다.
무엇이 무엇이다	체언 + 서술격 조사	명사문	순자가 회장이다.

(3) 문장 성분의 갈래

주성분 (필수 성분)	주어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서술어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
	목적어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보어	주어가 아닌 것으로 ‘되다, 아니다’ 앞의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부속 성분 (수의 성분)	관형어	체언을 수식하는 말
	부사어	용언을 한정하는 말
독립 성분	독립어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

(4) 문장 성분의 재료

문장 성분의 재료	세부 갈래	
단어(單語)	자립할 수 있는 말과 자립 형태소에 붙으면 쉽게 분리되는 말	
구(句) [중심이 되는 말과 그에 달린 말의 묶음]	명사구	명사와 그에 달린 말들의 묶음
	동사구	동사와 그에 달린 말들의 묶음
	형용사구	형용사와 그에 달린 말들의 묶음
	관형구	관형사와 그에 달린 말들의 묶음
	부사구	부사와 그에 달린 말들의 묶음

	독립어구	독립어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절(節) [온전한 한 문장이 한 문장의 재료가 된 것]	명사절	명사와 같은 구실(주로 주어, 목적어 구실을 한다.)
	서술절	서술어와 같은 구실
	관형절	관형어와 같은 구실
	부사절	부사어와 같은 구실
	인용절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쓰임

(5) 주어부와 서술부

구분	의미
주어부	주어 또는 주어와 그에 딸린 부속 성분의 묶음
서술부	서술어와 그에 딸린 부속 성분의 묶음

홀문장과 겹문장

(1) 홀문장의 정의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는 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이루어져 있는 문장. 예) 그가 드디어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아기가 잔다.
--

(2) 겹문장의 정의

한 개의 홀문장이 한 성분으로 안겨 들어가서 이루어지거나, 홀문장이 여러 개가 이어져서 여러 겹으로 된 문장.

(3) 겹문장의 갈래

갈래	의미
안은 문장	문장 속에 다른 홀문장이 성분으로 들어 있는 문장
이어진 문장	홀문장이 서로 이어지거나 여러 겹으로 된 문장

이어진 문장

(1) 이어진 문장의 갈래

갈래	의미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

(2)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① 대등하게 이어짐

대등적 연결 어미 ‘-고, -(으)며, -(으)나, -지만, -든지, -거나’ 등에 의해서 이어짐
--

② 대등적 연결 어미의 갈래

갈래	대등적 연결 어미
나열	‘-고’, ‘-며’
대조	‘-지만’, ‘-든지’, ‘-나’

(3)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① 종속적으로 이어짐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짐.

② 종속적 연결어미의 갈래

갈래	종속적 연결 어미
조건 . 가정	-(으)면, -거든, -라면, -어도
이유 . 원인	-(으)니까, -(으)므로, -아서/어서
양보	-(으)ㄴ망정, -(으)ㄴ지언정
덧보탬 . 더함	-(으)ㄴ뿐더러, -(으)ㄴ수록
의도	-(으)려고, -고자
목적	-(으)러
어떤 일의 배경을 보임	-는데, -(으)ㄴ데
다른 일로 옮겨감	-다, -다가
결과가 예상의 반대임	-(으)나, -아도, -지마는, -라도
어떤 상태에 이르기까지 행위가 미침	-도록, -듯이, -게

15. <답> ⑤

<정답률> 48%

<정답 풀이>

㉡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기’는 목적격 조사 ‘를’을 통해 해당 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 ‘장애물 달리기’에서 ‘달리기를’은 목적어는 맞지만 명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그 사람이 범인임’에서 관형어는 ‘그’이다.

② ‘그 사람이 범인임이’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③ 관형절 ‘부상을 당한’은 ‘선수’를 수식하고 있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④ ‘성적이 많이 오르기’에서 ‘많이’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TIP>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문장의 구조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학습한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된 문장에서 선지에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16~21] 독서-융합(인문+과학)

[지문 분석]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글의 제재)은 연월일시의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역법은 태양과 달뿐만 아니라 여러 행성의 운동을 담음)이었다. 역법의 운용(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씀)과 역서의 발행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여 역법을 다루었고 그곳의 관리에게만 연구가 허락되었다. 『서경(書經)』에서 말한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서경의 관상수시라는 말을 활용해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념을 드러냄)라는 뜻의 관상수시(觀象授時)는 유교 문화권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잘 드러낸다. 관상수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허락된 일이므로 고려 시대에는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따라야 했다. 고려 초에 도입된 선명력(중국의 역법 ①)은 정확성이 부족하여 고려 말에는 정확성이 높아진 수시력(중국의 역법 ②)을 도입했다. 수시력은 계산식이 복잡해 익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곧 교식을 후보할 때는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되었다. 이 상황은 조선 건국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1문단 :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과 중국의 역법을 도입한 고려

세종은 즉위 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고 마침내 수시력에 통달(사물의 이치나 지식, 기술 따위를 훤히 알거나 아주 능란하게 함)했다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세종 12년, 교식 후보에 오차가 생기자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조선만의 교식 후보 방법(계산식이 복잡해 익히기 어려운 수시력을 이해하려고 노력 → 교식 후보에 오차 발생 → 조선만의 교식 후보 방법 모색)을 찾고자 했다. 세종은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중국의 역법을 부정한 것이 아님)을 택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시간 규범을 스스로 수립(교식 후보 방법은 시간 규범을 나타내는 것임)하고자 한 것이다. 수시력으로 교식을 후보할 때에는 입성을 사용했는데, 이때의 입성은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입성이란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관측값 등을 실어 놓은 계산표(입성의 개념. 입성은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을 제작하려 했다. 그래서 입성 제작에 필요한 낮과 밤의 길이인 주야각을 후보하기 위해 한양의 위도 등(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아내도록 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세종 26년에 편찬된 『칠정산 내편』이다. ‘칠정’이란 태양, 달, 다섯 행성의 행을 가리키고, ‘산’이란 계산했다는 뜻이다. 『칠정산 내편』은 중국 역법에 기반을 두었지만 교식과 천체 관측에 필요한 값들을 한양의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역법(칠정산 내편의 의의)이라 할 수 있다.

2문단 : 칠정산 내편을 편찬한 세종

『칠정산 내편』(①)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세종은 정묘년(1447년) 8월에 일어날 교식을 미리 후보하여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②)을 편찬하게 했다. 그런데 이 후보에 오차가 발생하자 후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정비했다. 이 성과를 담은 책이 바로 세조 4년에 편찬된 『교식 후보법 가령』(③)(②의 교식을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후보한 것)이다. 이 책은 정묘년

(1447년) 8월의 교식을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후보한 것이다. 두 가령의 교식 후보 원리(②,③의 공통점①)는 동일하지만 계산식(②,③의 차이점①)을 약간 달리했기 때문에 교식 후보 시각(②,③의 차이점②)은 서로 달랐다. 두 가령의 교식 후보 시각은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 비교하더라도 그 방법론이 매우 정교하여 조선 역법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 주는 것(②,③의 의의)이다.

3문단 : 칠정산 내편을 바탕으로 편찬된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지구와 태양의 거리↓ → 공전 속도 ↑ / 근일점 → 공전 속도 최대) 그러므로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 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 즈음에 가장 느리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북반구의 동지 = 지구와 태양의 거리↓ → 공전 속도 ↑ / 하지 = 지구와 태양의 거리↑ → 공전 속도 ↓)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보았다.(근일점과 동지 모두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 즉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영,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이라 했다.(‘영’과 ‘축’의 개념) ‘영축차’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다.(‘영축차’의 계산 방법) 그러므로 영에서의 값인 ‘영차’는 양의 값이고, 축에서의 값인 ‘축차’는 음의 값이다. 달 역시 지구와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인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 ‘지질차’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지질차’의 개념) 근지점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그리고 원지점부터 근지점까지는 그 반대이다.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질차’, 뒤처지면 ‘지차’라 했다.(‘질차’, ‘지차’의 개념)

4문단 : 근일점에 따른 영축차, 근지점에 따른 지질차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를 삭(朔),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달을 가릴 때를 망(望)이라 한다. 정삭과 정망은 지구와 달이 태양과 정확히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될 때의 시각이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 모두 정삭,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정삭과 정망에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감하여 구했다.(②,③의 공통점② : 가감차 방식을 사용함) 이를 가감차 방식이라 한다.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향 값으로 나누어 구했다. 즉 가감차 값이 양일 때에는 그 값을 정삭, 정망에 더하는 가차로 삼았고, 음일 때에는 그 값을 정삭, 정망에서 빼는 감차로 삼았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②,③의 공통점③) 하지만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속도향 값(②,③의 차이점③)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지만, 『교식 후보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다. 이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②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속도향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 ③ 교식 후보법 가령은 속도향 값으로 달의 이동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

도를 뻗 값을 활용)

5문단 : 삭과 망을 바탕으로 가감차 값을 구한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꿈,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칠정산 내편』이 편찬된 지 200여 년 뒤, 일본을 왕래하던 조선 통신사 사신 박안기는 조선의 역법을 일본에 전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역법 『정향력』이 완성되었다. 동아시아 천문학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칠정산 내편』, 『정향력』(공통점 : 독자적인 역법) 등은 자국의 고유한 역법을 확립하고자 했던 열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6문단 : 조선의 역법이 일본의 역법 확립에 미친 영향

• 주제: 조선의 역법 확립 과정

1문단 :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과 중국의 역법을 도입한 고려

- 역법 : 연월일시의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운동을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
- 관상수시 :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 (유교적 관념을 잘 드러냄)
- 고려 초에 중국의 역법인 선명력과 수시력을 도입함

선명력	정확성이 부족함, 일식과 월식(교식)을 후보할 때 사용
수시력	정확성이 높으나 계산식이 복잡해 익히기 어려움

2문단 : 칠정산 내편을 편찬한 세종

- 세종은 계산식이 복잡해 익히기 어려운 수시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교식 후보에 오차가 발생하자 조선만의 교식 후보 방법을 모색함
-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택함
-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것 : 주야각, 위도
- 칠정산 내편의 의의 : 중국 역법에 기반을 두었지만 교식과 천체 관측에 필요한 값들을 한양의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음

3문단 : 칠정산 내편을 바탕으로 편찬된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

-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 편찬 배경 :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교식을 미리 후보함
- 교식 후보법 가령 편찬 배경 :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의 후보에 오차가 발생하여 후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정비함
-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의 공통점 ① : 교식 후보 원리
-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의 차이점 ① : 계산식, 교식 후보 시간
-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의 의의 : 방법론이 매우 정교하여 조선 역법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줌

4문단 : 근일점에 따른 영축차, 근지점에 따른 지질차

- 근일점 :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름(=동지)
- 영축차 :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
 - 영 : 동지부터 하지 사이
 - 축 : 하지부터 동지 사이
 - 영차 : 양의 값
 - 축차 : 음의 값
- 근지점 :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지점
- 지질차 :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
 - 질차 :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설 때(근지점부터 원지점까지)
 - 지차 : 달의 평균 위치가 실제 위치보다 앞설 때(원지점부터 근지점까지)

5문단 : 삭과 망을 바탕으로 가감차 값을 구한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

- 삭 :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
- 망 :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달을 가릴 때
-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의 공통점② : 가감차 방식을 사용함
 - 가감차 방식 : 정삭,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정삭과 정망에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감하여 구함
 - 가감차 : 영축차 - 지질차 / 속도항
-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의 공통점③ : 속도항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함
-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의 차이점② : 속도항 값을 달리함
 -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 : 달의 이동 속도의 값
 - 교식 후보법 가령 : (달의 이동 속도 - 태양의 이동 속도)의 값

6문단 : 조선의 역법이 일본의 역법 확립에 미친 영향

-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됨
- 일본의 역법 확립에 미친 영향 : 박안기가 일본에 전한 조선의 역법을 바탕으로 일본은 일본의 독자적인 역법인 정향력을 완성함

16. <답> ③

<정답률> 55%

<정답 풀이>

1문단의 ‘『서경(書經)』에서 말한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라는 뜻의 관상수시(觀象授時)는 유교 문화권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잘 드러낸다.’에서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고, 2~3문단에서 조선이 역법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6문단에서 역법을 확립한 조선의 역법이 일본의 역법 확립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 고려와 조선에서 ‘관상수시’를 어떻게 변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 ② 이 글에서 동서양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천문과 역법의 의미는 확인할 수 없다.
- ④ 이 글에서 조선의 교식 후보가 중국 천문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⑤ 이 글에서 조선 역법의 우수성을 부각했지만, 당대에 관측한 값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TIP>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경우 ‘정의, 인용, 인과’등의 내용 전개 방식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개 방식과 함께 글의 중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17. <답> ①

<정답률> 71%

<정답 풀이>

1문단에서 ‘관상수시’는 천자에게만 허락된 일이라고 언급했으므로 조선의 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2문단의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세종 26년에 편찬된 『칠정산 내편』이다. ‘칠정’이란 태양, 달, 다섯 행성의 운동을 가리키고, ‘산’이란 계산했다는 뜻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1문단의 ‘역법의 운용과 역서의 발행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여 역법을 다루었고 그곳의 관리에게만 연구가 허락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의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연월일시의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6문단의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글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선지의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지문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번 : 역법, 천자 부정, 독자적 정치 이념

2번 : 여러 행성들의 운동

3번, 4번 :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5번 : 유교적 이념의 실현

18. <답> ②

<정답률> 58%

<정답 풀이>

<보기>의 (가)의 전체 내용과 2문단의 내용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세종은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다가 교식 후보에 오차가 생기자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이 아닌 ‘칠정산 내편’이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다는 내용과 1문단의 내용을 연관 지어 생각하면 조선에서 교식을 후보할 때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나)에서 ‘북극출지의 고하’를 정하기 위해 ‘간의’를 ‘나무’로 만들었다가 ‘구리’를 녹여 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2문단과 관련지어 추리하면 교식 후보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천체 관측 기구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다)로 보아 『칠정산 내편』을 편찬하는 데, 수시력(중국의 역법)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다)의 발문을 쓴 ‘이순지’는 ‘주야각은 각기 근거한 곳에서 추정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중국과 조선의 입성이 달랐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TIP>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지를 확인할 때 선택지가 요구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9. <답> ③

<정답률> 29%

<정답 풀이>

<보기>에서 정묘년 8월은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라고 했으므로 촉이며, 태양의 실제 위치보다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가 더 앞설 것이다. 따라서 촉차이며 음의 값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달의 원지점에서 근지점에서 이동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역시 달의 실제 위치보다 평균 속도로 운행한 달의 위치가 더 앞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차이며 음의 값이다. <보기>에 의하면 정묘년 8월 경삭에서 영촉차 값과 지질차 값 모두 음의 값이므로 가감차 값은 양의 값이 된다. 따라서 정삭을 후보할 때 가감차 값을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달의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달의 위치보다 뒤쳐져 있었을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 ② 6문단의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 모두 정삭,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과 경망에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감하여 구했다. 이를 가감차 방식이라 한다. 가감차 값은 영촉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향 값으로 나누어 구했다. 즉 가감차 값이 양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 더하는 가차로 삼았고, 음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서 빼는 감차로 삼았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촉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속도향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지만, 『교식 후보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다.’를 바탕으로 가감차 값은 『교식 후보법 가령』이 더 컸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라고 했으므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촉차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 ⑤ 6문단의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를 삭(朔),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달을 가릴 때를 망(望)이라

한다.’에 따르면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을 때는 정삭이 아니라 정망이다.

<TIP>

18번과 동일한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자료가 18번과 달리 하나이지만 구체적 수치(8월, 2.39, 4.99 등)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서 선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0. <답> ③

<정답률> 56%

<정답 풀이>

4문단을 통해, 지질차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세종은 즉위 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고 마침내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세종 12년, 교식 후보에 오차가 생기자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조선만의 교식 후보 방법을 찾고자 했다.

②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러므로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 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 즈음에 가장 느리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만으로 낮의 길이와 공전 속도가 비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질차 = 양의 값’, ‘지차 = 음의 값’

⑤ 달이 태양보다 같은 방향으로 더 빨리 이동한다고 했으므로 『교식 후보법 가령』의 속도항 값이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다.

<TIP>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 본 해설 자료는 홍보용으로 공유되는 자료로서, 20번까지만 제공됩니다. 21번부터는 나무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아카데미의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할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모든 불법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캡처되고 있습니다.

등급컷

등급	원점수
1	82
2	73
3	63
4	52
5	42
6	33
7	24
8	19